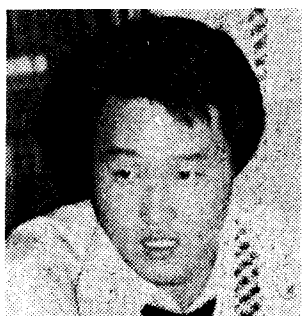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 올바른 평화론의 정립을 위하여 <5>

평화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



이 재 호

<아라리 연구소 연구원>

I.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운동의 의미

아-태지역은 지역적으로 가장 광대하면서 동시에 인구의 면에서도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실로 다양한 국가가 모여사는 곳이다. 그중 몇개의 국가는 산업, 무역, 교육, 과학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는 빈곤, 문맹, 후진성으로 인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발전을 위한 막대한 인력과 천연자원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평화구조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람들은 평화, 독립, 자유를 위한 독자적이고 다양한 투쟁경험을 통해 세계의 진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아-태지역은 여전히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로 인하여 완전한 자립구조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종속상태는 아직도 냉전적 대결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이 지역 평화운동의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평화란 단순히 표면적으로 전쟁이나 폭력, 위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의 근본적 원인인 권력과 권리의 불평등, 잠재적 폭력이나 전쟁의 가능성인 갈등과 적개심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의의 운동과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평화도 기존의 반평화적 국제질서인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불평등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전쟁억제나 분쟁의 해결일 수는 없으며, 기존 제국주의적 지배질서의 재편을 통한 평화정착이어야 한다.

그동안 아-태지역의 반평화구조는 이 지역 각국과 쌍무관계에 기초한 긴밀한 안보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에 의해 유지,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이 지역의 평화운동은 민족적 억압을 철폐하고 완전한 민족자결을 정취하는 자주화운동의 중심영역인 것이다. 미국의 아-태지역 지배의 핵심은 총병력 32만명을 보유한 태평양사령부와 거기에서 운

영, 관리하는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와 패권주의적 군사전략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구조를 거부하고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중심고리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민족에 기초를 둔 국가건설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인간들의 공동체적 의식이다. 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은 반식민지 해방투쟁에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제·반식민주의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피억압민족의 입장에서 불평등의 지배에 반대하고 독립과 존엄의 회복이라는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 전후 독립을 달성한 아-태지역 대부분의 민족은 민족운동의 새로운 형태, 즉 사회·정치적 통일-민족적 통일을 위한 운동과 민족 상호간에 공생권을 보장하는 민족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구체적 결실은 1960년대의 평화5원칙과 70년대의 자율주권론이 있다. 1954년 중국-인도간 조인된 평화협정의 5원칙은 이후 아시아 지역의 국교회복과 국가간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원리로 사용되었다. 한편 자원주권론은 1960년대 말 비동맹정상회의에서 제기되어 74년 UN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는 주권개념의 현대적 발전형태였다.

제2차 대전 이후에도 민족자결권과 국민적 통일을 완수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민족자결 독립의 길이어야 하며 동시에 민족해방과 주체적 삶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지역의 평화와 정치적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각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긴장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는 주체적 평화이어야 하며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만 안정적일 수 있다.

II. 미국의 아-태지역 안보 전략의 변화

아-태지역은 강대국들이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전략적 이익을 위해 줄다리기를 해온 지역이다. 특히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들과 쌍무조약을 통한 강화된 동맹체제의 구축과 군사기지 건설,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통해 확고한 패권을 유지해 왔다.

그동안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일일 상호안보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동

남아에서도 필리핀, 미국간의 동맹(1952년)과 더불어 ASEAN(동남아시아연합)과는 마닐라 평화협정 체결(1955년)이란 방위체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남태평양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ANZUS조약(태평양 안전보장조약) 기구(1952년)을 통하여 동맹체제에 편입시켰으며, 캐나다와는 합동방위국을 설치하여 북태평양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더욱이 대에고 가르시아를 점령함으로써 인도양 해상까지의 장악은 태평양 전역을 완벽하게 미국의 호수'로 만들었다.

1980년대 들어 신냉전이라는 세계정세의 도래와 아-태지역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

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고 한국, 필리핀 등을 그 수직적 분업체계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와 아시아 각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아-태 지역은 일본에 비해 냉전질서가 보다 강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안보' '노선의 강화' 등 완강한 태도로 인해 아직 대당트가 도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향후 소련의 아-태 지역에 대한 평화공세 및 '경제적 안보'노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전반핵 평화운동은 체제간의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고 한국, 필리핀 등을 그 수직적 분업체계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와 아시아 각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아-태 지역은 일본에 비해 냉전질서가 보다 강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안보' '노선의 강화' 등 완강한 태도로 인해 아직 대당트가 도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향후 소련의 아-태 지역에 대한 평화공세 및 '경제적 안보'노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전반핵 평화운동은 체제간의

민족모순의 해결고리로서 정립되는 평화운동



아-태지역 구조,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군사전략에 유지·강화 민족자결의 보장 위해 해군기치 등 긴장요소 제거해야

었다. 70년대 중반이래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니카라과에서의 잇따른 혁명으로 인하여 고조되기 시작한 미국내 보수파의 불만은 대소 강경노선을 채택시켜 신냉전이 격화되고 이에 따라 긴장대결구조의 집중점은 동북아시아로 이동하였다.

또한 일본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신총공공국(NICS) 및 ASEAN의 경제적 비중의 증대는 '태평양공동체' 구상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의 제기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안보동맹관계의 존속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막대한 경제, 정치, 안보적 측면의 혜택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내외적 조건에 의하여 이 지역의 안보전략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변

은 군비경쟁이 국제평화 세계의 여론에 의해 고립되고 미국내의 쌍둥이 적자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세계, 92년으로 예정된 EC통합 움직임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태지역을 단순히 '군사전략적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적 안보'의 거점으로 파악하게 하였다. 여기서 EC통합과정은 동독과 프랑스의 대미 경제력 등 다국화의 진전가능성으로 인하여 미국의 안정적 이익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은 자연히 상대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이 강고한 아-태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소련의 평화공세, 자본주의의 진영의 다국화, 국제평화체제의 입력, 재정자금의 부족 속에서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구조와 정치·군사적 역할을 제

군사·정치 대결을 점차 완화시켜 나갈 것이다.

III. 아-태지역의 평화운동

1948년부터 오늘날까지 태평양지역에서만 2백회를 상회하는 원수폭 실험으로 원주민들이 제물로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또한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 가상의 적대국과 기지주인을 감시하기 위해 핵기지를 설치해 왔다. 이러한 핵전쟁에 의해 죽어가는 태평양을 살리기 위해 현지 주민들은 완강한 반핵·반기지주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래 태평양에서는 약 8백만명의 원주민이 각 섬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식민주의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은 정복과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이 지역에서는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67개와 15개의 기지를 설

치기 미국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은 그 사용대가로 80년부터 91년까지 9억달러의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 필리핀 여성회', 'BAYAN' (신애국자동맹), 'KMP (필리핀 농민운동)', 평화와 연대평화의회', 'PPSC (반기지주인)' 등이 중심이 되어 반기지·반핵운동을 전개하였다. 78년과 82년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제2차 UN군축총회에 제출하였다. 필리핀 상원에서는 영토 내의 핵무기 반입, 보유를 전면 금지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지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지의 담보로 제안되고 있는 미국의 마셜플랜(대비다군 감원조)에 관한 교섭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1989년 1월 12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그밖의 연대운동으로는 비핵지대운동이 있다. 1984년 11월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등 남태평양의 가평국(SPF)은 남태평양 비핵지대에 관한 조약을 마련하고 85년 8월이 초 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금지)을 국시로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의의있는 공법화자들이 1979년 4월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연대운동으로서의 평화·비핵지대의 설치를 가로막는 내부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확경쟁 과정에서 인종, 파키스탄, 한국 등 핵을 수입하는 종속적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광범한 민족운동의 고양과 함께 민족적 정권의 수립이 긴요한 과제로 대

이와같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역적 합의와 집단적 실천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외국군의 철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비핵지대의 창설, 세계적인 핵무기 경쟁을 중지시킬 핵폐기가 그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할 주체가 있어야 하며, 불평등과 부정을 철폐하여 인류를 전쟁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시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세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쟁은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계획되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능히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쟁과 무기체제는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악이며, 평화와 인류에 대한 반역행위이다.

글쓰는 순서

1.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의의
2. '사회주의 평화론'의 발전과정
3. 서유럽의 평화운동 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구권 변혁
5. 민족모순의 해결고리로서 정립되는 평화운동 (아-태지역 중심으로)
6. 한반도에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7. 기획서보

평화와 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민중회의'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탄압했던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필리핀에서 민중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기지·반핵 운동은 미국의 신식민주주의에 항거하여 주권을 회복하려는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만에서는 아미족이 난서도의 핵폐기를 저장소 철폐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3세계는 아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의 MX미사일 발사시험관측에 참가를 거부하였으며 뉴질랜드도 1985년 2월 비핵지대를 선언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함정의 기항을 금지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대운동으로는 85년 말 남아시아 지역협력연맹(SAARC)이 발족되어 기술·경제면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가고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남태평양영토에 의해 '남태평양 비핵지대 설치조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1988년 7월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가 개최되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핵무기·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과 상호불가침선언을 기치로 대회를 진행시켰다. 1989년 1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18개국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평화와 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민중회의'가 개최되어 아시아를 비핵지대로 선언한 '마닐라선언'을 채택하였다.

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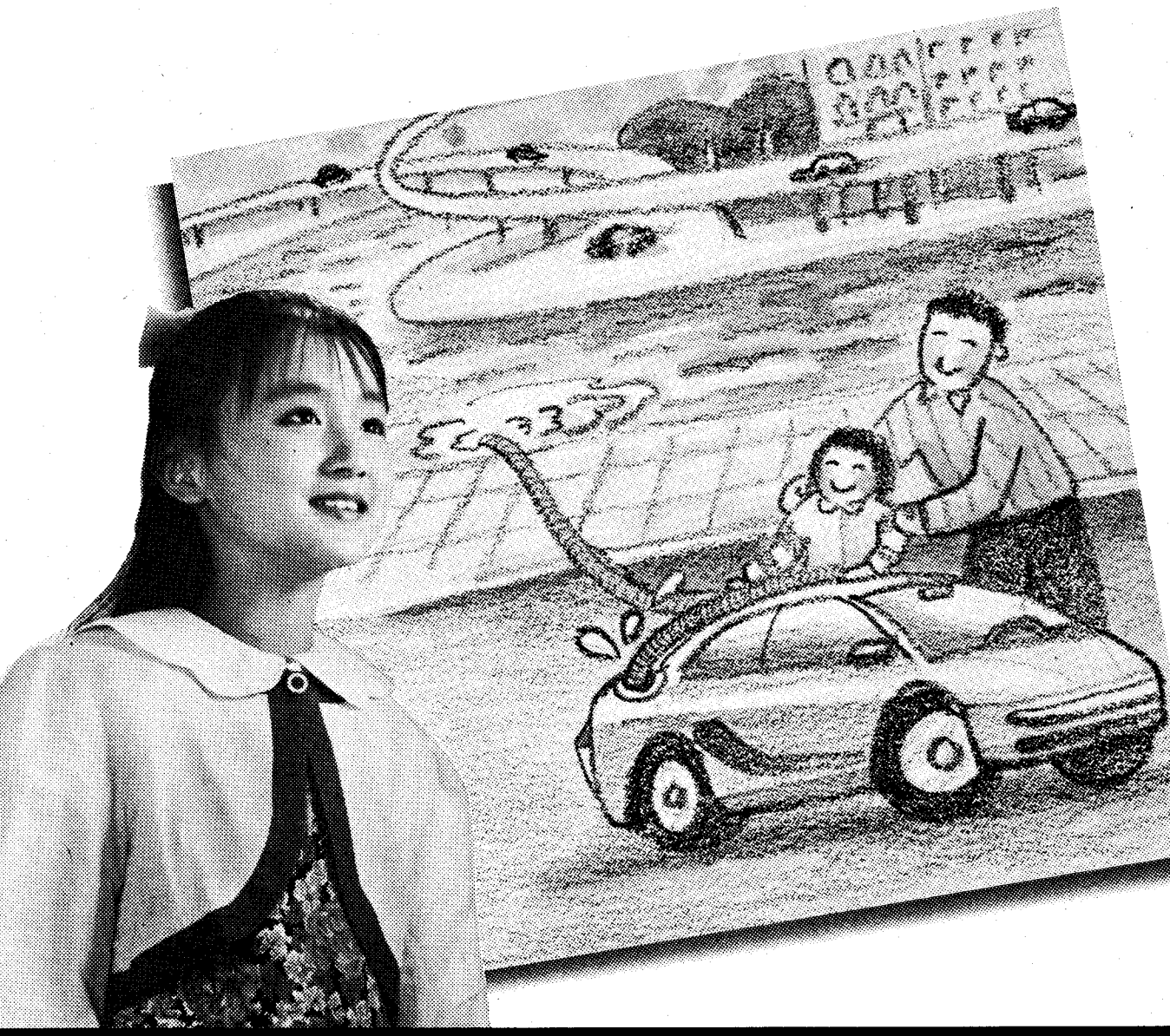
IV. 아-태 지역 평화운동의 방향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태풍처럼 못난 지역중의 하나이다.

미국이 최초로 원폭을 사용한 것도 이 지역이며, 제2차 대전후 가장 잔혹한 전쟁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일어난 곳도 이 지역이었다. 세계적인 대당트 무드에도 불구하고 동서냉전의 여파가 가장 끈질기게 잔존하고 있는 곳도 이 지역이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는 국제정세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민족적 자원의 자각과 평화, 독립, 자유를 위한 다양한 연대운동이 요구된다.

아-태 지역에서 모든 국가가 상호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공존과 상호존중의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은 또한 상호간의 불가침, 주권존중과 그러한 전제 속에서의 군사력 사용 금지가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일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이 군사적 안보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재, 아-태 지역에서의 상호 무장체제를 위해서는 이 지역 민족들과 국가가 집단적, 지역적으로 행동통일을 이루어 냄으로써, 강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광범한 대중적 평화운동에 의해 촉진된 아-태 지역 국가들의 지역적 합의와 집단적 실천이 지역적 무장체제 및 군비축소의 실제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③



“오빠!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참 좋을거야. 그렇지?”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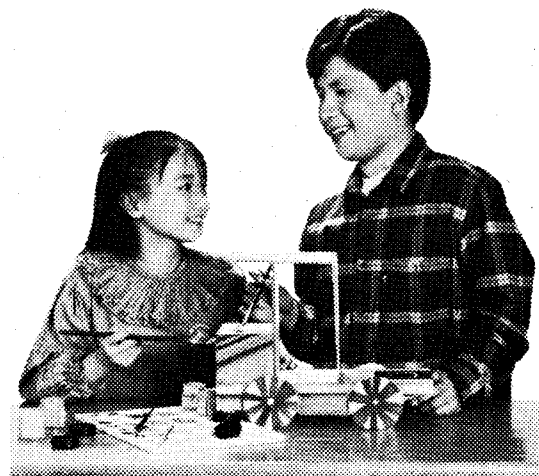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수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단다. 따라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그 에너지를 힘으로 사용할수만 있다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을거야.

자동차가 맹물로 가게 되면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기름 걱정 안해도 될거고, 또 수돗물을 넣고 신나게 달린다. 다시 시냇물 한바가지 부어넣고 부응- 정말 편하고 좋겠지?

그런데 매일 학교로 가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시험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지만 아직 아무도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완성시키지 못했단다.

그러나 윤정이가 지금부터 꿈을 갖고 연구해서 만들어보면, 지금까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크고 작은 발명품들도 처음엔 모두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했단다.

상상해봐! 맹물로 가는 자동차의 여류발명이 윤정-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겠니?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SC 화학공학과 2년

조준

현대自動車